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4. 2. 21.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 도 자**

성경 봉독 ---------- **요한복음 12장 20~28절** ---------- **다 같 이**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 나눔 ------ 모든 성도가 가야할 제자도 -------- 인 도 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 스스로 영광 받을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이 기회를 제자들이 걸어야 할 제자도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주역이 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를 일러 주시는 말씀 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원어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때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죽어야 합니다.

본문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성도들의 헌신적인 죽음이 가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지'(ἀποθνήσκω, 아포드네스코)는 일반적으로는 '생명의 상실'을 가리키나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신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등을 못 박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한편 '열매'(καρπος, 카르포스)도 말 그대로의 '나무의 열매'나 사람의 대를 이어 줄 '자손'등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신앙을 통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체적 의미를 보면 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코 성령의 열매(갈 5:22), 빛의 열매(엡 5:9), 의의 열매(빌 1:11) 등을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고 싶으시다면,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세상적인 정욕을 미워해야 합니다.

본문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사랑하는'(φιλέω, 필레오)에는 자기 부모 혹은 자녀를 '사랑하다', 자기 것에 '애착을 가지다' 등의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자기 생명에 대한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며 본능적인 애착을 의미합니다. 또 '미워하는'(μίδεω, 미세오)은 원수를 '미워하다'(마 5:43), 불법을 '미워하다'(히1:9)라는 뜻으로 본능적인 불쾌감과 거부감, 나아가 증오심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살려는 인간적인 욕망을 ‘증오하다’란 의미입니다.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러한 것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영생을 얻으려면 그 세상으로 향하는 정욕을 미워하고 끊어버릴 때 영생을 얻고 참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워하고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은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르다'(κολουθεο, 아콜루데오)는 '같은 길에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그물을 버려 두고(막 1: 18), 자리를 털어버리고(막 2: 14), 자기를 부인하고(막 8: 34) 주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부인한다 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행이나 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세상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아를 죽이고 난 후 이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제일의 전제 조건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본능적 애착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이 만족 된 후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테면 나를 위해 살던 것을 주님을 위해 살고, 내 뜻대로 행하던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 없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실로 미워하고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께 참 제자로 인정받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눔 — 다 같 이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욕은 무엇인가요?
있다면 어떻게 그 정욕을 미워할 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2 2024년 1-2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결심했던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누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주세요!

중 보 기 도 —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다 같 이

1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사랑의 언어로 서로 축복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2 가정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도록

3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4 목회자와 리더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5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마무리 기도 —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 뜻대로 행하던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